



대지진의 후유증으로 도산 및 파산 기업 확산

이상우 선임연구원

■ 일본은 대지진과 쓰나미,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동일본 대지진 재해로 인해 도산하는 일본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.

- 일본 동경상공리서치의 도산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6월 30일 현재 동일본 대지진의 직접 간접적 피해로 도산한 기업이 162건, 경영파산을 맞은 기업이 51건 등 일본 전역에서 도산 및 파산한 기업이 총 213건임.
- 이 수치는 1995년 고베한신 대지진 때의 동일기간과 비교해 4배나 빠른 속도로 기업들이 도산한 것으로 한신대지진 때는 1995년 1월 17일부터 4개월 동안에 62건, 1년간 144건에 불과하였음.
- 이번 대지진으로 도산 및 파산한 기업은 대지진 발생 66일 만인 지난 5월 16일 100건을 돌파한 데 이어 다시 39일 만에 두 배로 늘어나는 등 기업들의 경영악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양상임.

■ 도산한 기업을 업종별 지역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2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, 숙박 18건, 기계 설비 도매업 7건, 음식점 6건 등으로 나타남.

- 도산한 기업을 지역별로 보면 도쿄가 28건으로 전체 도산기업의 17.2%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 홋카이도 15건, 후쿠시마현 10건 등으로 나타났고, 대지진의 직접 피해지역인 도호쿠 등 6개 현에선 도산 기업이 29건으로 전체의 17.9%를 차지함.
- 파산한 기업은 도쿄를 포함한 관동지역이 21건으로 가장 많고, 지진피해지역인 도후쿠 지역에서 13건, 오사카를 포함한 긴키지역 7건 등으로 나타남.
- 또한 도산 및 파산한 기업 중 간접적인 지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간접형이 191건으로 전체에서 89.7%를 차지하며, 직접형의 경우 22건으로 10.3%를 차지함.
- 부채 규모별로는 1억 엔 이상 5억 엔 미만의 기업이 60건으로 전체의 41%에 달함.

(동경상공리서치 6/30, 아사히신문 6/24, 뉴스 종합)